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**보도참고자료**	"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,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"

자료문의 : 전략시정정책과 김영환 과장(02-2110-4632), 정근용 사무관(4630)
* 현지 로밍폰 : 001-4479-4285-3815 또는 3852(앞자리 같음)
석유산업과 조영신 과장(02-2110-4890)

이라크, 긴급시 한국에 원유 우선 공급키로

- 조석 2차관, 이라크 샤리스타니 부총리 만나 협의 -

□ 한·이라크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이라크를 방문중인 지식경제부 조석 2차관은 3.15일 이라크 샤리스타니(Hussain Al-Shahristani) 에너지 부총리 등을 만나 양국의 경제, 에너지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

< 이라크 경제사절단 개요 >

- 일시/장소 : 3.13(화)~17(토), 바그다드
- 방문단 : 석유공사, 가스공사, 두산중공업, 현대건설, STX, 효성, 삼성SDS, 현대중공업, 쌍용건설, SK이노베이션, GS건설, 대우건설, 현대오일뱅크 등 25명
- 주요면담 인사 : 샤리스타니 에너지부총리, 알 아라지 투자위원회 위원장, 모하메드 산업광물부 차관, 전력부·국방부·공공사업부·국영석유수출기구(SOMO) 고위 인사 등

< 주요 논의내용 >

① 이라크 원유도입 관련

○ 한국은 에너지의 97%를 해외에서 도입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도입이 매우 중요하며 최근 이란 제재, 국제유가의 빠른 상승 등으로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라크측의 협조를 당부하였는 바, 이에 대해 샤 부총리는 이란 사태로 한국이 원유수입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이라크에 요청하면 우선적으로 공급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

② 한-이라크 경제에너지협력협정 활성화

○ 우리측은 이라크측에 한-이라크 경제에너지협력협정에 바탕을 두고 경협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요청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 제1차 장관급 운영위원회(Steering Committee) 또는 실무위원회 한국 개최를 제안하였는 바 샤 부총리는 협력방향에 대하여 공감함

③ 에너지개발사업 지속 참여

○ 우리측은 가스공사가 유·가스전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사업참여 기회에 대해 샤 부총리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자 샤 부총리는 앞으로 한국기업의 유·가스전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함

④ 방산분야 협력

○ 조 차관은 T-50은 성능이 입증되고 인도네시아에도 수출한 경험이 있는 고등훈련기라는 점을 강조하였고, 샤 부총리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밝힘

□ 경제사절단은 알 아라지 투자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국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,

○ 양국간 투자협정 체결, 제철소 건설(STX), 해수담수화 프로젝트(두산중공업), 무선통신망 사업(삼성SDS), 시멘트공장(현대건설) 등 우리기업의 관심 분야에 관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였음

□ 이라크는 아랍정상회의 개최(3.29) 등을 통하여 전후 재건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, 우리에게는 '제2의 중동 붐의 한 축'이 될 것으로 기대됨

* 이라크는 세계 4위의 석유매장량 보유국('10년, 1,150억B, 세계전체의 8.3%), 우리나라 제4위의 원유수입국('11년, 9.7%, 9천만B), 1일 생산량 약 300만B

참고1 샤리스타니 부총리 약력

성 명	후세인 알-샤리스타니 (Hussain Al-Shahristani) 
연 령	1942년생 (만 70세) 카르발라 출신
학 력	○ 1965 바그다드대학 화학공학 학사 ○ 1967 Imperial College, London 화학공학 석사 ○ 1970 University of Toronto 핵화학 박사
주요경력	○ 1977 - 이라크 저명 핵물리학자 출신. 이라크 핵에너지위 위원장, 바그다드대학 핵화학과장('77-'79) ○ 1979-1991 후세인의 핵무기 개발계획 참여거부로 11년간 투옥 ○ 1991 - 걸프전 기간동안 Abu Ghraib 감옥을 극적 탈출, 캐나다 국적의 부인 Bernice 여사와 이란으로 망명, 이후 이란, 런던에서 반후세인 활동전개 ○ 2006. 5 - 석유부장관 ○ 2010.12 - 에너지 부총리
특이사항	○ 시아파 동맹 소속이나 특정 계파에 소속되지 않아 정파간 갈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움. 수니 및 쿠르드에게도 거부감이 없어 과도정부 수상에 거론되기도 하였음 ○ 독실한 이슬람신자로 시스타니 등 종교지도자들과 친밀한 관계, 많은 이라크인의 존경을 받고 있음

참고2 한-이라크 경제·에너지협력협정 개요

□ '09년 양국정상이 체결한 MOU*의 경제-에너지 상호지원 합의를 구체적 사업으로 이행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협정 체결 추진

* '09 MOU : 한국 경제지원과 이라크 에너지지원을 교환하자는 원칙만 규정

- '11. 3.9~10 지경부장관(최중경) 이라크 특사 파견, 협정 초안 제시
  4.13~14 양국 국장급 실무협의 개최(바그다드)
  4.19 양국 장관급 협상을 통해 최종안 합의 (바그다드)
  4.28 양국 정상 임석하에 서명(최중경 장관-샤 부총리, 서울)

□ **주요 내용**

○ (경제협력) 대규모 경협사업(Great Work) 추진기반 마련

① 이라크 정부 재정사업에 대한 **재무부 지급 보증**
② 한-이라크 JV 설립, 파이낸싱 지원 등 **투자 위험 경감조치** 마련

○ (에너지협력) 안정적 원유공급 보장 및 유전개발 참여기회 확보

① 한국 기업의 요청에 따라 **장기공급계약을 통한 원유공급**
② **비상 상황시** 한국 기업에 **최소 25만B/D 우선공급권** 제공
* **국내 원유수입량의 약 10%**로, **자주개발률 8% 제고와 상응**하는 수준
③ 자격조건을 갖춘 한국기업에게 **유전개발 입찰 참여기회 제공**
* 특히, 1~2차 입찰시 유찰된 유전에 대한 응찰 기회 제공 명시

○ (이행체계) 협정 이행을 관장할 운영위원회 설치

* 운영위원회 대표 : (이라크측) 에너지 부총리, (우리측) 지경부장관

참고3 우리나라의 원유도입 현황 및 주요국별 석유매장량

□ 우리나라의 원유도입 현황

국가	2011년			2010년		
	물량(천B)	순 위	비중(%)	물량(천B)	순 위	비중(%)
사우디	302,987	1	32.7	286,312	1	32.8
쿠웨이트	129,706	2	14.0	112,604	3	12.9
카타르	93,095	3	10.1	64,362	5	7.4
이라크	**89,709**	**4**	**9.7**	**59,956**	**6**	**6.9**
UAE	87,234	5	9.4	105,656	2	12.1
이란	87,184	6	9.4	72,605	4	8.3
러시아	32,971	7	3.6	50,160	7	5.8
인도네시아	21,008	8	2.3	29,668	9	3.4
오만	16,715	9	1.8	12,152	11	1.4
전 체	926,723	-	100	68,684	-	100

* 중립지대 원유도입 물량은 사우디와 쿠웨이트에 각각 반분함

□ 상위 석유매장량 국가('10년, 확인매장량 기준)

(단위 : 십억배럴)

순위	국가	물량	점유율(%)
1	사우디	264.5	19.1%
2	베네수엘라	211.2	15.3%
3	이란	137.0	9.9%
4	이라크	115.0	8.3%
5	쿠웨이트	101.5	7.3%
6	UAE	97.8	7.1%
7	러시아	77.4	5.6%
8	리비아	46.4	3.4%
9	카자흐스탄	39.8	2.9%
10	나이지리아	37.2	2.7%
전 세계		1,383.2	100.0%

* 자료 : BP,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